

지역 소식통

고창, '답답한 규제 탁! 깨기' 원스톱 온라인 청구 운영

고창군이 군민·기업으로부터 규제개선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규제혁파신문고 '답답한 규제 탁! 깨기' 원스톱 온라인 청구를 개설·운영한다.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규제혁파신문고' 온라인 청구를 통해 생활속 불편, 인·허가 및 민원처리시 불합리한 절차, 기업 애로사항 등 불편한 규제나 법령, 조례·규칙에 규정된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군은 규제혁파신문고에 건의된 규제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및 개선한다. 상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각종 생활불편이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점검

정읍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지원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검사와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정부 지원 유기질 비료의 부정·불량비료 유통을 근절하고 농업인에게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업체로, 농가에 공급되는 가축분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8개소, 14개 비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기질비료 생산 원료 적정 여부, 비료 생산과 판매 기록, 비료 중량 및 보증성분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농촌진흥청이 지정 고시한 생산시험연구기관에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정읍시, 5억2000만원 투입... 26개 단지 사업 추진 4월 2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4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올해 3억7,8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대상 단지를 지난해 7월 신청 받아 선정했고, 선정된 단지는 벤치 설치, 도색 등 주민 공용

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3,500만원을 투입해 7개 단지의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희망 단지는 4월 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세 번째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용감사 후 10년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단지별 최대 1,500만원

을 지원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희망 단지는 4월 2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 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으로 3개 단지에 총 7,200만원을 지원해 주택의 도로, 가로등, 놀이터 등을 보수한다.

이학수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도 건축·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 대표 부안노을감자를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본격적으로 수확한다.

부안노을감자 본격 수확 시작

군, 고품질 감자생산 시설감자 육성 및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의 대표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은 천년의 숨씨 부안노을감자를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본격적으로 수확한다.

올해 부안노을감자는 동진면과 계화면을 중심으로 149ha, 1,569동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중이며 연말·연초 폭설과 저온, 그리고 2월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 및 병해 등으로 생육이 저조하였으나, 3월들어 평년 기후를 유지하여 현재 생육은 양호한 상태이며, 생산량은 평년대비 10~15%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부안노을감자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어 타 감자 주산지 보다 이른 수확, 높은 가격에 출하하여 부안군 대표 고품질 작목으로 손꼽힌다.

특히, 부안노을감자는 감자재배에 적합한 사질토양에서 부안의 지리적 특

징인 해풍을 맞고 자라 맛이 매우 뛰어나고, 껍질이 얇고 칼륨 성분이 높아 우리몸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다.

또한, 감자는 풍부한 비타민C 함량으로 면역력 강화는 물론, 다양한 무기질 함량이 높아 체외로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관리에도 효과가 있으며, 낮은 칼로리로 인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시설감자 육성을 위해 매년 비닐 교체, 개폐시설, 철재(파이프), 포장재, 지력증진 비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감자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최대 100만원 활동비 지원

고창군이 지속 가능한 군민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 모임을 진행해 정기적인 학습 및 재능기부를 통해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동아리

는 최대 100만원의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지원자격은 고창군민 7인 이상 구성되어 3개월 이상 활동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모임을 진행하는 동아리로 △학습활동과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평생학습동아리 15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공고문 및 신청서는 고

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3월 27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창군의 평생학습 동아리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560-292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개암동 벚꽃축제' 30~31일 개최

부안군의 대표 봄꽃 축제인 제6회 개암동 벚꽃축제가 오는 30~31일 2일간 상서면 개암동 벚꽃길에서 개최된다.

금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서개암동벚꽃축제추진위원회는 "내가 와서 꽃이고, 봄(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암을 찾는 상춘객 봄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암동 벚꽃축제는 비록 규모가 작

은 소규모마을축제이지만 매년 2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벚꽃 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벚꽃 스테이지'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푸드존' △가족과 함께하는 '체력프로그램' △교통약자 배려 '셔틀버스 운행' △푸른하늘 힐링센터 '벚꽃 명존' △벚꽃과 함께 사진찍기

좋은 '포토존' △상서면 '특산품판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분과별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계획한 콘텐츠 준비를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기현 벚꽃축제추진위원장은 "사고없는 더 안전한 축제 개최와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올봄 개암동 벚꽃길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꽃길 걸으며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산불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 산불예방 총력 당부

정읍시는 지난 21일 산불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열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이학수 시장과 강화화 정읍소방서장, 산불감시원과 산불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행적인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빈번해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산불감시원, 산불 관련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강화화 서장은 "산불 등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는 산불 담당 공무원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시와 소방이 한 몸이 돼 불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날 직무교육에 참석한 산불 담당 공무원들은 산불방지 기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직무역량을 강화했다.

산불 담당 공무원들은 한 명이 여러 마을을 담당해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을 수행하며, 산불감시원들은 담당구역 내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감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는 '농민 공익수당'을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2년 이상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으로, 작물재배배업자는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한다.

양평농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평농가로, 꿀벌(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립이다.

다만,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지난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산지·양봉산업·수산업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농업부산물·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

대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는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통장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향후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정읍시농업지원센터 60만원을 지급(중전)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